

## 1 Peter 베드로전서 1:3-9

설교자: Kevin Stauffer

## Ministry Updates in France 프랑스 선교 현황 업데이트 (5-10 분)

Intro: This is one of my favorite books of the Bible because it so dense. What I mean is that it is so rich and so packed with good things for us as believers, even though it is relatively short. I am blessed every time I read First Peter.	<b>서론:</b> 이 성경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짧지만, 아주 풍성하고 신앙생활에 유익한 진리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마다 저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First, chapter starts right off with praise. Peter is writing to the gentile Christians who are dispersed throughout Asia. The people have been persecuted and scattered far from Rome and most certainly, their world would have been filled with trials, chaos, uncertainty, about tomorrow. They were strangers in a strange land and their belief that Jesus was the resurrected Messiah alienated them from everyone else around them. It sounds a lot like us, as Christians, today. You feel that, don't you? We don't fit in here. What we love, what we value, what we believe is not the same as the rest of the world. We are outsiders here. That is why I think these two letters from Peter resonate with me so much: I feel like he is talking right to me.	이 편지는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아 로마로부터 멀리 흩어졌고, 분명히 내일을 알 수 없는 혼란과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낯선 땅의 나그네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메시아라는 믿음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상황 아닐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우리는 이 세상에 잘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 믿는 것은 세상의 것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외부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의 두 편지가 제 마음에 깊이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제게 직접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b>He starts off with Praise:</b> "Praise be to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Much of my ministry revolves around church music and how the	<b>찬양으로 시작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b> 제 사역의 대부분은 교회 음악, 즉 성도들이 함께 모여

church praises and worships God when it comes together. So I love that Peter starts this letter with “Praise God” and then goes on to tell us why we should be praising God, even though we are suffering and this life is hard. Peter tells us that we should praise God because:

1. God the Father has caused us to be born again to a Living hope in Jesus Christ
2. We have an eternal inheritance that awaiting us until Christ returns
3. We are being guarded until then by God through our faith in Christ
4. Because of this we can have joy in the midst of suffering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로 시작한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는 이어서 왜 우리가 이 고난 많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1.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으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2.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간직된 영원한 유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3.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4. 이 모든 것으로 인해,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Praise The Father in heaven because He has Caused us to be born again**

I'm going to come back to this idea about a living hope, but let's look at that phrase “Born Again”. We use it a lot. But think about what it really implies. It's a complete transformation. We are not, as believers, the same people we were before, but a little better now. Col. 2 says we were DEAD in our old lives, and we are now “made alive together with him”. In John 3, Jesus said that if we are not born again, w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 “산 소망”이라는 표현은 나중에 다시 다룰 예정이지만, 먼저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거듭남은 완전한 변화입니다. 우리는 단지 조금 나아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2 장은 우리가 옛 삶에서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 장에서도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p>What's more, this verse say that because he is merciful, God CAUSED us to be born again. He did it. If you are a believer, at some point in your life, you heard the gospel and believe it. But you can't even really take any pride in that accomplishment because the Bible says in lots of places that God chose you, you didn't choose him. You all know people that have heard the gospel, maybe that you have shared the gospel with, but they just can't accept it. They maybe are too attracted to what this world has to offer, or they think God should be different than they find him in the Bible, so they won't accept it. Pray for them! Pray that God open their eyes and hearts so that they can see him. So that they can put to death the "old man" and be born again. The Holy Spirit has to change their heart.</p>	<p>이 구절은 또한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지만, 그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더 끌리거나, 성경 속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눈과 마음이 열려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옛 자아를 죽이고 거듭나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p>
<p>I just finished Bible school. There they called it "Sovereign regeneration"—God causes the new birth. So, if you are a Christian, you should praise him that he caused you to be born again.</p>	<p>저는 최근 성경학교를 졸업했는데, 그곳에서는 이것을 “주권적인 중생(Sovereign Regenera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탄생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p>
<p><b><u>Praise God Because We have an Eternal Inheritance</u></b> Romans 8:16-17 says that believers are “ heirs with Christ, if indeed we suffer with Him, that we may also be glorified together.” We are official members of the family with all the rights and</p>	<p><b>우리는 영원한 유산을 가졌기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b> 로마서 8:16-17 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함께 영광도 받게 될 것이니라.”</p>

<p>privileges that go with it. I live in France and French law is quite a bit different than in the U.S. One way it is different is inheritance law. In France, if you have kids, when you die, no matter what your will says, all of your kids split your estate equally. If you had a favorite kid, too bad, all the kids get an equal share. It is their right as your heir.</p>	<p>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식 상속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프랑스는 미국과 유산법이 좀 다릅니다.</p> <p>프랑스에서는 부모가 사망하면 유언에 관계없이 모든 자녀가 똑같이 유산을 나눠 갖습니다. 좋아하는 자녀가 따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녀로서의 권리입니다.</p>
<p>It's the same with us. As believers, we have a right to our eternal inheritance. SO.... What do we know about this inheritance that we are promised?</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First, we will have relationship with God in eternity-" And 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John 17:3) Rev. 21:3 tells us that God will dwell with man. Our inheritance is not primarily a place or a thing but a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We will really, truly see him face to face.</li> <li>2. Righteousness will shine like the sun (13:43)</li> <li>3. Resurrection Bodies (1 Cor 15:50-57)</li> <li>4. We will reign with Christ (2 Tim 2:12)</li> <li>5. New Heavens and New Earth (Rev21:1)</li> <li>6. Our text tells us that our heavenly reward is imperishable and Jesus also says this in the sermon on the mount. We should praise God because we have an</li> </ol>	<p>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p> <p>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천국의 유산을 받을 권리를 가졌습니다.</p> <p>그 유산은 어떤 것입니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함 – 요 17:3 "영생은 오직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li> <li>2. 의인은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마 13:43)</li> <li>3. 부활의 몸 (고전 15:50-57)</li> <li>4.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 (딤후 2:12)</li> <li>5. 새 하늘과 새 땅 (계 21:1)</li> <li>6. 우리의 상은 썩지 않으며,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li> </ol> <p>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유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p>

<p>unimaginably great inheritance that awaits us.</p> <p><b><u>Praise God because He is guarding not only our heavenly reward, but us.</u></b></p> <p>This is what Reformed Theologians call the doctrine of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 One of my favorite preachers, John Piper, explains it like this: “If I can keep myself in the faith, I don’t need [God] to keep me in the faith. So I take this to mean “kept by the power of God through faith,” meaning that’s the way God does it. He keeps me through faith; that is, he sees to it that I get up and believe in the morning. So if you asked me, “Why did you get up a believer this morning and not an unbeliever?” My answer is, “He kept me. He kept me. He worked in my mind, which is always drifting away, and he draws me back.”</p>	<p><b>하나님은 우리의 유산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지키고 계십니다.</b></p> <p>이것은 개혁주의 신학에서 "성도의 견인(Perseverance of the Saints)"이라 불립니다.</p> <p>존 파이퍼 목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믿음 안에 계속 있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 안에 있게 하신다는 것은, 아침에 눈뜨며 다시 믿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깨어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기 때문입니다.”</p>
<p>One of my favorite song writers is a good friend in London named Ben. He and one of our professors wrote a song together that talks about this. One verse goes; “I persevere in hope: the Spirit leads me home, the blood of Christ will yet suffice, and you will keep your own.” We should praise God because he guards us by faith until salvation is fully realized at some future time.</p>	<p>런던에 있는 제 친구 벤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교수님과 함께 이런 가사를 썼습니다:</p> <p>“나는 소망 중에 인내하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네, 그리스도의 보혈이면 충분하네, 주께서 친히 지키시네.”</p> <p>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얻을 때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p>
<p>Praise God because this Living Hope that we have gives us joy in the midst of suffering</p> <p>Verses 6 and 7 give us this amazing picture of the Christian life and it begins</p>	<p><b>우리가 가진 이 산 소망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b></p> <p>6 절과 7 절은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놀라운 그림을</p>

<p>with idea of living hope. It says “In this you rejoice, though now for a little while, if necessary, you have been grieved by various trials, so that the tested genuineness of your faith— more precious than gold that perishes though it is tested by fire— may be found to result in praise and glory and honor at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p>	<p>우리에게 보여주며, 그 시작은 산 소망이라는 개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p> <p>“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p>
<p>Now, the “THIS” it refers to at the beginning of that verse is this Living Hope. It’s what you have your heart set on. If you have your hope in anything else, it’s dead or dying. What I mean is, if Cheryl’s hope in in me, she’s in trouble. We’ve been married 34 years and she looks just the same, but if you look at pictures of me back then and look at me now, you’ll “What happened”? I’m a dying hope, not a living hope. We all are. We are all perishing. You don’t want your hope to be in person. They will let you down and will eventually leave you or you will leave them.</p>	<p>이 구절의 시작에서 말하는 “이것”은 바로 이 산 소망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두는 대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소망이 그 외의 어떤 것에 있다면, 그것은 죽어가거나 이미 죽은 것입니다.</p> <p>제 말은, 만약 Cheryl 이 저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면,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34 년이 되었고, 그녀는 지금도 예전과 똑같이 보이지만, 저의 옛날 사진과 지금 모습을 비교해 보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라고 하실 겁니다. 저는 산 소망이 아니라 죽어가는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썩어져 갑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결국 그들은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떠나거나, 여러분이 그들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p>
<p>We put our hope in lots of different things; money, fame, success in our job, comfort, good health, acceptance, romantic love, family, our retirement, the government. Well, hopefully not the government. The world tells you to put your hope in these things, to seek</p>	<p>우리는 돈, 명예, 직장 성공, 편안함, 건강, 인정, 로맨틱한 사랑, 가족, 은퇴, 정부 등 다양한 것들에 소망을 둡니다. (정부에는 안 그러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에 소망을 두라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을 사랑하라고 합니다.</p>

<p>after these things, to love these things. And that's a good way to define suffering-the stripping away these things. It's taking away whatever is on that list that matters to you. Suffering is the loss of a family member, or of your health, or your fortune, or your feeling of being loved and accepted.</p>	<p>그리고 이것이 바로 ‘고난’을 정의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이것들이 하나씩 벗겨지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 목록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잃는 것입니다. 가족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재산을 잃거나, 사랑받고 인정받는 느낌을 잃는 것이 고난입니다.</p>
<p>The gospel stands that on it's head. Remember that verse in Colossians I mentioned earlier? It goes on to say Set your minds on things that are above, not on things that are on earth. For you have died, and your life is hidden with Christ in God. (Col. 3:2-3). When we are born again, Christ becomes our hope-our LIVING hope. He died for your sins, came back to life and is alive now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where the bible says he prays to the Father for you. That's a living hope. It's a hope that you can count on. It's a hope that won't leave you or forsake you.</p>	<p>복음은 이것을 뒤집어 놓습니다.</p> <p>아까 언급한 골로새서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골 3:2-3).</p> <p>우리가 거듭날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 즉 산 소망이 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p> <p>이것이 산 소망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소망입니다. 결코 여러분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 소망입니다.</p>
<p>One of my current favorite worship songs is called “I set my hope on Jesus”. The first verse captures this better than I can say it:</p> <p><i>When this life of trials test my faith I set my hope on Jesus When the questions come and doubts remain I set my hope on Jesus For the deepest wounds that time won't heal There's a joy that runs still deeper There's a truth that's more</i></p>	<p>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 하나는 “I Set My Hope on Jesus”입니다. 첫 번째 구절은 이 메시지를 저보다 더 잘 표현합니다:</p> <p>이 인생의 시련이 내 믿음을 시험할 때 나는 예수님께 소망을 둡니다 질문이 많고 의심이 남을 때에도 나는 예수님께 소망을 둡니다 시간이 치유하지 못하는 깊은 상처에도</p>

<p><i>than all I feel</i> <i>I set my hope on Jesus</i></p>	<p>더 깊이 흐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모든 것보다 더 큰 진리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소망을 둡니다</p>
<p>So in verses – and 7 of our text it says “In this you rejoice, though now for a little while, if necessary, you have been grieved by various trials, 7so that the tested genuineness of your faith—more precious than gold that perishes though it is tested by fire— may be found to result in praise and glory and honor at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perishing.” The “THIS” we rejoice in, is that Living Hope.</p>	<p>그러므로 6 절과 7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뻐하는 “이것”은 바로 산 소망입니다.</p>
<p>The last thing I want to talk about is this idea rejoicing in trials. The way Peter writes this is paradoxical. It says we rejoice now, it’s present tense-you rejoice though you suffer trials-It’s present tense. We have joy now and we have suffering now. The word in Greek used there is a heavy word. It’s the same word for suffering that Jesus uses when he is in the garden at Gethsemane when he told Peter and James and John “My soul is very sorrowful, even to death”. He is saying my soul feels crushed with sorrow.</p>	<p><b>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주제는, 고난 중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b> 베드로가 이것을 쓰는 방식은 역설적입니다. “기뻐한다”는 말도 현재형이고, “근심한다”는 말도 현재형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쁨이 있고, 동시에 지금 고난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서 사용된 “근심”이라는 단어는 무거운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내 마음이 죽을 만큼 슬프다”고 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내 영혼이 슬픔에 짓눌려 있다는 뜻입니다.</p>
<p>Peter is saying “you rejoice now” and “you have sorrow now”. Not, you had sorrow but you will have joy or you were grieving but not you are rejoicing. He’s not even saying, which Christians say</p>	<p>베드로는 말합니다: “지금 너희는 기뻐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너희는 근심하고 있다”.</p>



a lot, you are suffering but you know that you have this joy is “waiting for you in glory” and that gives you the strength to hold on. What Peter is saying here is radical and it doesn’t make sense to world, or probably even to most Christians because it’s so radical. Peter is saying that right now you are filled with immense joy and at the same time you are filled with intense sorrow. This seems impossible because it seems like an either/or proposition. Either you are full of joy or you are full of sorrow. One thing would cancel out the other. Joy would diminish your sorrow and sorrow would diminish your joy, right?

“너희가 슬퍼했다”가 아니라 “지금은 기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듯, “너는 지금 고난 중이지만 언젠가 영광 중에 기쁨을 얻을 것이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매우 급진적이고, 세상은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는 엄청난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동시에 극심한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걸 불가능해 보입니다. 마치 ‘기쁨이냐 슬픔이냐’의 양자택일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But if you are born again into this living hope, your joy isn’t based on your circumstances like health, or success, or your family all doing wonderfully. In fact, this verse says that suffering acts a like crucible and drives us further into our faith. You all know this. It’s never when everything is going perfect that grow in your faith. It’s in the trials and the tests of life that we dig even further down into the Living Hope that we have in Jesus. It’s in the suffering that we realize how valuable this living hope is. The text says that the trials refine our faith the way fire refines gold; it makes it more pure and makes it shine even brighter.

그러나 여러분이 산 소망 안에서 거듭났다면, 여러분의 기쁨은 건강이나 성공, 혹은 가족의 평안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고난이 마치 도가니처럼 작용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정련시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지요. 모든 일이 순탄할 때 믿음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시험과 시련의 때에, 우리는 더욱 깊이 예수 안에 있는 산 소망으로 파고들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이 산 소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본문은 고난이 금을 정련하는 불처럼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결하고 빛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p>That's why James says "Count it all joy when you face trials" because it perfects our faith. The suffering actually, in a way no non-believer will ever understand, actually leads you to more joy. That doesn't mean we diminish the suffering. How did Jesus handle the cross? He sweated blood and he screamed and cried out on the cross. He didn't say "well, I know God is working everything out, so it will be OK". He really went through unbelievable suffering and still had joy.</p>	<p>야고보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p> <p>고난은 믿음을 완전하게 만듭니다.</p> <p>이 고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방식으로, 오히려 우리를 더 큰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난을 가볍게 여겨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p> <p>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p> <p>피 땀을 흘리시며 비명을 지르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다.</p> <p>“다 관참을 거야”라고 쉽게 넘기지 않으셨습니다.</p> <p>그분은 정말 고통을 겪으셨습니다.</p> <p>그리고 여전히 기쁨이 있으셨습니다.</p>
<p>To close, I just want to give you one way to apply this into your life. How do we do this? How do we let this Living Hope transform us so that we can really be joyful in suppering?</p> <p>Look at how Jesus did it. Hebrews 12 tells us that Jesus “for the joy that was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despising the shame”.</p>	<p><b>마지막으로, 이 산 소망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게 할 수 있을까요? 고난 중에도 진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b></p> <p>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2 장은 말합니다:</p> <p>“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p>
<p>Jesus suffered, he really suffered. But he also had joy and the joy that was set before him wasn't being back in heaven with the Father. He already had that. Isaiah 53 prophecies about what Jesus joy was. The thing held took real joy in, even while suffering on the</p>	<p>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정말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p> <p>하지만 그분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p> <p>그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다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그건 이미 그분의 것이었습니다.</p>

cross. It says in Isiah 53 verse 11 that “Out of the anguish of his soul he shall see and be satisfied; by his knowledge shall the righteous one, my servant, make many to be accounted righteous, and he shall bear their iniquities.”

이사야 53 장 11 절은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이었는지를 예언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다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The joy set before him was you. If you are born again, the joy set before Jesus that carried him through his suffering was his people, the elect, the “one’s that God had given him” being counted righteous before God and reigning with him forever. The joy set before him was his bride to be. He suffered but could be joyful because he knew what was to come. The cross way unbelievably hard but Jesus knew it wasn’t forever but eternity with his bride was. And in that same way, if we can take hold of that living hope that we have as born again believers, we can have true joy in the midst of terrible suffering because we KNOW that we have a living hope. We know the future. We know our place. We have an inheritance that cannot be taken away and God is guarding us until we receive it.

그 앞에 놓인 기쁨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이 거듭난 자라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견디실 수 있었던 이유인 그 앞에 놓인 기쁨은 그의 백성, 곧 택하심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앞에 놓인 기쁨은 그분의 신부가 될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오히려 기뻐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무엇이 올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믿기 힘들 정도로 힘든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신부와 함께하는 영원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가진 이 산 소망을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큰 고난 가운데서도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압니다.

	<p>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압니다.</p> <p>우리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유산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까지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p>
<p>This may not be a great illustration, but last August when our Granddaughter was born, Our daughter-in-law was so enamored with her new daughter that the first night or two back from the hospital she was like “I just want to hold her all the time, Kev.” I would offer for us to keep her at night and Carlie was like “I just can’t”. It was a little hard because we had come a long way to get our hands on that baby. However, when she said that, instead of being upset or worried or even stressed, my wife and I just exchanged a knowing look. And sure enough, after a couple sleepless nights, she came up to us and asked if we could keep the baby for the night. Then we got the baby all we wanted while we were there. She was thrilled to have the help. You see, we might have been a little disappointed to not get to have as much time with that new baby as we wanted at first, but we KNEW what was coming. And it was worth the wait.</p>	<p>이 예화가 완벽하진 않을 수 있지만, 작년 8 월에 우리의 손녀가 태어났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p> <p>우리 며느리는 갓 태어난 딸에게 너무 반해서, 병원에서 돌아온 첫날 밤이나 이틀 동안 이렇게 말했습니다.</p> <p>“Kev, 그냥 이 아이를 계속 안고 있고 싶어.”</p> <p>제가 “우리가 밤에 아이를 맡아줄게”라고 제안했을 때, Carlie 는 “그냥 못 하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p> <p>우리는 그 아기를 품에 안기 위해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힘들기도 했습니다.</p> <p>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와 아내는 화내거나 걱정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p> <p>그리고 역시나 며칠 밤을 잠 못 이루고 나서, 그녀는 우리에게 와서 “오늘 밤 아기를 맡아주실 수 있나요?”라고 부탁했습니다.</p> <p>그리하여 우리는 우리가 원했던 만큼 아기를 안을 수 있었습니다.</p> <p>그녀는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아주 기뻐했습니다.</p> <p>보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그 아기와 시간을 보낼 수 없어 조금 실망했을 수도 있지만, <b>우리는</b></p>

	<p><b>무엇이 올지를 알고 있었습니다.</b></p> <p>그리고 그 기다림은 충분히 가치 있었습니다.</p>
<p>If we can understand how great our living hope is, if we can understand just how good the gospel is, then when trials come, even hard, hard trials, we can say “I knw how this is going to turn out”. We can have joy even when we experience grief and sadness and pain. This is how Paul was able to tell the Philippian church to “rejoice in the Lord always” and why he wrote “I have learned the secret of facing plenty and hunger, abundance and need.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That Secret is the Living Hope that all born again believers have.</p> <p>Let's Pray.</p>	<p>만약 우리가 이 산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이해한다면,</p> <p>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깊이 깨닫는다면,</p> <p>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힘든 시련이라 할지라도,</p> <p>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p> <p><b>“나는 이게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있어.”</b></p> <p>비탄과 슬픔과 고통을 겪을지라도, 우리는 <b>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b></p> <p>이것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이고,</p> <p>그가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 안에서.”라고 쓸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p> <p>그 <b>비밀</b>은 바로,</p> <p><b>거듭난 모든 자들이 가지고 있는 산 소망입니다.</b></p> <p>기도합시다.</p>